

#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거하시던 예수님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증거하며 사는 자들임을 깨닫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한다.



##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 1 : 35~42

찬송 : 312장(통 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기도 : 말은 이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배경설명 :

1 : 1-18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으로서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예

Kingdom  
Life



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1 : 19-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 즉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40절)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35절)이라는 표현은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요 3 : 25)도 하였고, 금식을 비롯한 강도 높은 금욕생활과 영성훈련을 하였다(마 9 : 14). 또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순교당했을 때에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도 알릴 만큼(마 14 : 1-12) 매우 깊은 존경심과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세례 요한의 소개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도움말 :**

- 어린 양(36절, 헬 : 암노스) : ‘암노스’는 희생 제물의 문맥에서 사용되며, 흠없고 점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려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따르거늘(37절, 헬 : 에콜루데산) : ‘에콜루데산’은 지적, 도덕적, 종교적 추종과 관련된 용어로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구하느냐(38절, 헬 : 제테이테) : 헬라어 ‘제테이테’의 문자적인 의미는 ‘목표를 삼다’, ‘원하다’, ‘추구하다’ 이다.
- 보라(39절, 헬 : 옴세스테) : ‘옴세스테’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경험하다’, (마음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각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 받는 대화와 본문의 장면을 머리 속으로 그려가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30분)**

**1. 세례 요한은 그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으며, 그 말을 들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35-37절)**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 ▶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도움말 참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과 같은 대속 제물이 되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요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

▶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즉시 따른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은 어떤 의도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들에게 소개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요 1: 19-34 참조).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다. 그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때가 이르자 그의 제자들이 더 이상 그를 따르는 대신에, 그의 삶의 목적적이었던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권하기 위해 그렇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던 것이다.

▶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 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2.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38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다.

▶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움말 참조)

‘구하느냐’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목표를 삼다’, ‘원하다’, ‘추구하다’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던 것이다.

▶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네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자초하기가 쉽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게 하자.

3.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무엇이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8-39절)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라고 질문한다. 예수님 또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와서 보라”라고 응답하신다.

▶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왜 알고자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계시는지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신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답했던 것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

▶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지에 대해 답을 하는 대신에 왜 “와서 보라”라고 응답하셨을까요?(도움말 참조)**

예수님도 그 두 제자들과 같이 그들과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험에 기초한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와서 보라”는 말은 ‘지금 바로 오라 그러면 계속해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동행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 주셨던 것이다.

▶ **주님과 함께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신다(요 15 : 4-5 참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당신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고 싶어하는가?

4.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안드레가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0-41절)**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

▶ **본서의 저자인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 메시아에게로 데리고 간 것이 그가 ‘먼저’ 한 일이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예수님 혹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경험이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안드레가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다.**

▶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여 준 안드레의 행동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안드레는 먼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살기(15분)**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은 1번(개인 적용) 질문을 건너뛰어도 될 것이다.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혹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려하는가? 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직히 고백하고, 한 주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자.

**2.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소그룹이 함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예 : 소그룹이 함께 준비한 식사에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여 사랑을 나누기, 각자가 만난 예수님 경험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전도 책자를 만들어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등.